

1. 士大夫可居處(鵝州雜錄): 한중연 장서각(귀K3-650)

서명		士大夫可居處																																																																																																																																			
서지 사항	표제	鵝洲雜錄																																																																																																																																			
	권책수(면수)	1책 44면																																																																																																																																			
	판본형태	필사본																																																																																																																																			
	필사연도	1751~1752년																																																																																																																																			
	행자	10行 24字 註雙行																																																																																																																																			
	규격	30.3×14.8cm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K3-650																																																																																																																																			
	표기문자	한문																																																																																																																																			
	장서인	무																																																																																																																																			
필사기	此書不知何人所作, 而論八道·地理·生利·風俗. 然西北四道非士大夫可居之地, 故只抄錄其京圻及三南于此爾.																																																																																																																																				
기타사항	洪重寅의 『鵝洲雜錄』 권107에 실려있다.																																																																																																																																				
편목 사항	계열	초고본 계열																																																																																																																																			
	<table><tr><th colspan="3">정본 택리지</th><th colspan="2">士大夫可居處</th></tr><tr><td colspan="3">序文</td><td colspan="2"></td></tr><tr><td colspan="3">序論</td><td colspan="2"></td></tr><tr><td rowspan="10">八道論</td><td colspan="2">八道論 序說</td><td rowspan="4">(八道論)</td><td colspan="2">(慶尙道)</td></tr><tr><td colspan="2">平安道</td><td colspan="2">(全羅道)</td></tr><tr><td colspan="2">咸鏡道</td><td colspan="2">(忠淸道)</td></tr><tr><td colspan="2">黃海道</td><td colspan="2">(京畿道)</td></tr><tr><td colspan="2">江原道</td><td rowspan="5">(卜居論)</td><td colspan="2">(卜居論 序說)</td></tr><tr><td colspan="2">慶尙道</td><td colspan="2">(地理)</td></tr><tr><td colspan="2">全羅道</td><td colspan="2">(人心)</td></tr><tr><td colspan="2">忠淸道</td><td>(山水)</td><td>(溪居)</td></tr><tr><td colspan="2">京畿道</td><td colspan="2">(跋文)</td></tr><tr><td rowspan="10">卜居論</td><td colspan="2">卜居論 序說</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地理</td><td></td><td colspan="2"></td></tr><tr><td>生利</td><td>貿遷</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人心</td><td></td><td colspan="2"></td></tr><tr><td rowspan="8">山水</td><td colspan="2">山水通論</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名山名利</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都邑隱遁</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海山</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嶺東山水</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四郡山水</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江居</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溪居</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3">結論</td><td></td><td colspan="2"></td></tr><tr><td colspan="3">跋文</td><td></td><td colspan="2"></td></tr></table>					정본 택리지			士大夫可居處		序文					序論					八道論	八道論 序說		(八道論)	(慶尙道)		平安道		(全羅道)		咸鏡道		(忠淸道)		黃海道		(京畿道)		江原道		(卜居論)	(卜居論 序說)		慶尙道		(地理)		全羅道		(人心)		忠淸道		(山水)	(溪居)	京畿道		(跋文)		卜居論	卜居論 序說					地理					生利	貿遷				人心					山水	山水通論					名山名利					都邑隱遁					海山					嶺東山水					四郡山水					江居					溪居					結論						跋文					
	정본 택리지			士大夫可居處																																																																																																																																	
	序文																																																																																																																																				
	序論																																																																																																																																				
	八道論	八道論 序說		(八道論)	(慶尙道)																																																																																																																																
		平安道			(全羅道)																																																																																																																																
		咸鏡道			(忠淸道)																																																																																																																																
		黃海道			(京畿道)																																																																																																																																
		江原道		(卜居論)	(卜居論 序說)																																																																																																																																
		慶尙道			(地理)																																																																																																																																
		全羅道			(人心)																																																																																																																																
		忠淸道			(山水)	(溪居)																																																																																																																															
		京畿道			(跋文)																																																																																																																																
		卜居論	卜居論 序說																																																																																																																																		
	地理																																																																																																																																				
	生利		貿遷																																																																																																																																		
	人心																																																																																																																																				
	山水		山水通論																																																																																																																																		
			名山名利																																																																																																																																		
都邑隱遁																																																																																																																																					
海山																																																																																																																																					
嶺東山水																																																																																																																																					
四郡山水																																																																																																																																					
江居																																																																																																																																					
溪居																																																																																																																																					
結論																																																																																																																																					
跋文																																																																																																																																					

	특징	편목은 없고 洪重寅의 발문이 있다. 내용상 팔도론은 경상도·전라도·충청도·경기도 네 지역만 기록했고, 북거론은 생리를 제외한 지리·인심·산수만 논하였으며, 산수는 溪居만 수록되어 있다.
특이 사항		홍중인의 『아주잡록』 권107에 수록된 택리지 이본이다. 내제는 『士大夫可居處』이고 저자를 이중환으로 추정된 뒤 내용을 전사했다. 홍중인의 의도에 따라 대폭 편집된 특징을 지니고 편목은 없다. 팔도론은 평안도·함경도·황해도·강원도가 빠져 있다. 북거론은 「生利」를 제외한 「地理」, 「人心」, 「山水」만 있고, 또 「산수」에서는 「溪居」만 논하였다. 홍중인은 발문에서 사대부가 사대부가 거주지를 택할 때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드러냈으니 「생리」가 빠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 초고본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1751년이고 홍중인의 몰년은 1752년이라, 홍중인이 이룬 시기에 『택리지』 초고본을 보고 내용을 새로 편집한 뒤 발문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고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이본이다. 전체 분량은 44면으로 많지 않지만, 홍중인이 설정한 기준에 맞춰 내용을 축약하거나 새로 고쳐 쓴 부분이 많다. 일부에서는 홍중인의 당색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정한 대목이 포착된다. 다른 이본과 마찬가지로 이 본에도 지명과 인명이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인다. 정본의 犬灘이 大灘으로, 珠旒山이 珠旒山으로, 七長山이 七亭山으로 쓰여 있다. 頭註와 間註는 각각 한 군데 등장하니, 두주는 ‘남사고는 호가 격암이고 지리를 잘 알았다.[南師古, 號格巖, 善地理.]’라고 하였고, 간주는 ‘今上初’ 아래에 ‘謂英廟朝’라고 하였다.

■ 주요 이본 대조표

연번	대 목 차	소 목 차	내용	
			정본 택리지	士大夫可居處
1			없음.	此書, 似抄出於『擇里誌』, 而『擇里誌』則乃李重煥(驪州人也.)所作. 以此推之, 所作者, 可知矣. 此書不知何人所作, 而論八道·地理·生利·風俗. 然西北四道非士大夫可居之地, 故只抄錄其京畿及三南于此爾.
2	八道論	慶尙道	甘川南則爲禪石山, 山南則星州·高靈, 高靈即古伽倻國也. 又南則爲陝川, 并在伽倻之東, 而三邑水田爲嶺南最上腴, 少種多收, 故土着并富饒, 無流移者. 星州則山川明秀, 自麗多間顯土, 至我朝, 東岡金字顯·寒岡鄭述, 并是州人.	甘川南則星州, 德裕東一枝, 離嶺爲伽倻山, 山東即星州邑治, 是古三韓·前伽倻國也. 北有立石, 山南有星峴, 兩山間, 長川曠野, 而得灌溉, 利水田, 田皆上上. 甘川北固沃土, 而立石以南, 尤饒沃, 故多世富, 山川亦明郎. 自古名宦金東崗字顯·鄭寒崗述, 皆州人, 故邑多文學之士.
3	八道論	忠清道	烏棲以前一脈西南行, 爲聖住山. 山西即庇仁·藍浦, 土極膏腴, 西臨大海, 有魚鹽粳稻之利. 山南即舒川·韓山·林川, 臨鎮江地, 宜苧, 苧利甲一國. 居江海間, 舟船之利, 不下漢陽. 鎮江南即全羅境也. 山東北有鴻山·定山, 鴻在林川北, 東與江景隔江, 定在青陽東, 與公山接壤. 茲七邑大同俗,	烏棲之南, 鎮江之北, 有八縣. 鎮江即錦江入海處也, 江之南爲全羅境. 錦水自流西爲熊津, 又折而南爲江景, 又折而西爲鎮江入海, 一江西北皆烏棲餘麓也. 縣邑俱在山海間, 惟林·韓山·舒川三邑, 在江景西·鎮江上, 山平野衍, 地宜苧, 苧利甲一國. 居江海間, 舟船輻輳, 魚鹽之利, 不下漢江, 易以廢居. 故其民喜商賈治

			又多士大夫世居者。而惟青陽·定山二邑，地皆瘴泉，不可居。	生，多士大夫流寓致富厚者，然水濁而山不佳。青陽·定山，土粘赤山庸關，水有瘴，不宜居。
4	卜居論	人心	壬戌，又起許璽獄，人言沸騰，西人中老少又分。老論以金錫胄·金萬基爲首，宋時烈·金壽興·金壽恒·閔維重·閔鼎重右之，少論以趙持謙爲首，韓泰東·吳道一·南九萬·尹趾完·朴泰輔·崔錫鼎和之。老論欲盡殺南人，而少論立異，此其所以分也。	自此南·西如水火，而西人又分爲老論·少論。老論則以金錫胄·金萬基爲首，宋時烈·金壽恒·閔鼎重·李師命·金益勳等補之，多年老達官，故名老論；少論則以趙持謙爲首，韓泰東·吳道一·南九萬·尹趾完·朴泰輔·崔錫鼎等和之，多年少名士，故名爲少論。老論欲盡殺南人，而少論不從，此其所以分也。
5	卜居論	山水溪居	없음.	茂朱雪川寒風溪土沃，而又在泰山上下，易以避兵。錦山竹堡，峽中開野而土沃，西有釣溪山，瀑布泉石，濟原上下亦臨水爲勝，而土且沃，又德裕近可以避兵。

鵝洲雜錄 卷之一百七

士大夫可居處 [此書，似抄出於『擇里誌』，而『擇里誌』則乃李重煥 [驪州人也。] 所作。以此推之，所作者，可知矣。]

此書不知何人所作，而論八道·地理·生利·風俗。然西北四道(=平安道·咸鏡道·黃海道·江原道)非士大夫可居之地，故只抄錄其京畿(=京畿道)及三南(=忠清道·全羅道·慶尙道)于此爾。

(八道論)

(慶尙道)

慶尙道地理最佳。北有太白山，堪輿家所謂漲天水星。左出一大枝，薄東海爲慶州，是新羅國都也。仍南止於東萊海上，右出一大枝爲小白(=小白山)·鵲城(=鵲城山)·曦陽(=曦陽山)·青華(=青華山)·俗離(=俗離山)·黃岳(=黃岳山)·德裕(=德裕山)·智異(=智異山)等山，止於南海上。兩枝間，沃野千里。

潢池大澤，在太白山上峯下。穿山而出，自北而南，至禮安東折，而西循安東之南，至龍宮·咸昌境，始南折而爲洛東江。洛東者，謂尙州之東也。江入于金海，劃一道中央，江北爲之左道(=慶尙左道)，江南爲之右道(=慶尙右道)。兩枝山又大合於金海，七十州同一水口。

上古內有百里之國甚多，至新羅取之爲一。新羅享國千年，人才多出。

自高麗至我朝，幾千年，而又多公卿·文翰之士，號爲人才府庫。我朝則宣廟(=宣祖)朝以前秉國者，皆本道人，五賢之從祀聖廟(=成均館)，又是本道人。自仁祖朝，栗谷(=李珥)李珥·牛溪(=成渾)成渾·白沙(=李恒福)李恒福門生弟子，皆爲

靖難功臣，故自是偏用京城(=漢陽)世家。今百年之間，自嶺南(=慶尙道)爲判書者二人，爲亞卿¹⁾者四五人，無拜相者，高不過三品，下不過州縣。然先輩流風餘俗，至今未泯，俗尙禮讓文物，至今科第之多甲於他道。然左道(=慶尙左道)地瘠民貧，好儉嗇，多文士，右道(=慶尙右道)土沃民富，喜豪侈而媮惰，不力於文學，故少貴顯之士，此其大較也。土地饒瘠或錯，人才亦錯出矣。

禮安之東，順興·榮川·醴泉等邑，在太白(=太白山)·少白(=小白山)之南，茲爲神臯福地。而太山之下，平原曠野，明秀清朗，自古多卿相之臣。禮安退溪(=李滉)李滉之鄉，安東西厓(=柳成龍)柳成龍之鄉。故茲五邑隣比，最多士大夫世居者。重文學，雖孤村殘戶，輒有讀書聲，鶉衣甕牖，皆談道德性命矣。然近少衰俗，雖愿謹而少齷齪，喜是非論議。然此乃一道之最，而右道(=慶尙右道)諸邑，皆不及此矣。

自安東南渡潢水，有八公山，山北潢(=潢水)南，有義城等八邑，大同俗，然貴顯自古不及潢(=潢水)北。東南卽慶州故都，謠俗尙多，逼東海，縮魚鹽之利，東南通倭館(=草梁倭館)，亦一都會也。郊原平闊，氣像昭曠，鄉人李晦齋彥迪(=李彥迪)從祀文廟(=成均館)。故多文學之士。

公山(=八公山)南大丘，有琴江(=琴湖江)，自東而入洛東江，爲大丘監司所治，亦一都會也。

大丘之南十餘州，土雖沃，自古少聞人，薄南海隣倭(=日本)。其中密陽·東萊，漢陽商譯輩多宿留重貨，與倭人通貨，非士夫可居之處也。

右道(=慶尙右道)則聞慶在鳥嶺之下。北有主屹(=主屹山)之險，南有大灘(=犬灘)，西有曦陽(=曦陽山)·青華(=青華山)，東有天柱(=天柱山)·大院(=大院山)。四山多有奇勝，中間頻開野，爲嶺南(=慶尙道)界首，當南北大路。在重險中，堪興家謂少脫殺。

南過大灘(=犬灘)，卽咸昌野，咸昌之南爲尙州，尙州一名爲洛陽(=尙州)，嶺南(=慶尙道)一大都會也。在火嶺下洛江(=洛東江)西，山雄野闊，土沃近鳥嶺，北通忠州·京畿(=京畿道)，臨洛江(=洛東江)，南通金海·東萊。有運船集爲南北水陸走集，縮一道利，便於貿遷，故生利厚，自古多富厚者，又多聞人顯官文學之士。南則善山，山川比尙州，尤秀穎清淑，酷似漢陽東郊。諺曰：“朝鮮人才，半在嶺南(=慶尙道)；嶺南(=慶尙道)人才，半在善山”。

善山之西秋風(=秋風嶺)，德裕(=德裕山)以東水，合爲甘川，入洛東(=洛東江)。臨甘川一帶爲邑者，金山·知禮·開寧與善山，俱享灌溉之利，水田極腴。

甘川南則星州，德裕(=德裕山)東一枝，離嶺爲伽倻山，山東卽星州邑治，是古三韓·前伽倻國也。北有立石，山南有星峴，兩山間，長川曠野，而得灌溉，利水田，

1) 亞卿：원문에는 惡卿으로 되어 있는데, 정본에 의거하여 亞卿으로 바로잡는다.

田皆上上。甘川北固沃土，而立石以南，尤饒沃，故多世富，山川亦明郎。自古名宦金東崗字顯(=金宇顯)·鄭寒崗述(=鄭述)，皆州人，故邑多文學之士。

南踰星峴卽陝川，陝川南則三嘉，故南冥(=曹植)曹植之鄉，植(=曹植)之門人，金宇顯·鄭述·鄭仁弘。仁弘(=鄭仁弘)言行乖戾，尊南冥(=曹植)，攻退溪(=李滉)，從遊者甚衆，四隣多被其誤。宣廟(=宣祖)末，東崗(=金宇顯)致仕歸老，而避仁弘(=鄭仁弘)，不歸星州，卜居於清州鼎坐山以終。仁弘(=鄭仁弘)光海(=光海君)朝爲相，爲大北領袖，仁祖反正，戮于都市。其門人不知仁弘(=鄭仁弘)之惡而以爲寬，多廢科不出，以故星州以南，少貴顯者。然富厚喜治行義，多好父老佳子弟，是兩崗(=金宇顯·鄭述)餘澤也。

晉州臨蟾江，在智異(=智異山)東，土尤益肥厚，又有江山之勝。故土居士大夫喜治第宅·田園·亭臺之勝，以富厚相矜高。

然星峴以南多嵐，晉州則泉皆帶瘴，不可居矣。故曰：左貴右富。茲乃士大夫華止之所，間多千年名師，然地僻遠，非沿海邑，則又無船路，非本土人，京城(=漢陽)士夫未易遽往。非地不可往，勢不可往也。

(全羅道)

全羅道本百濟地。後百濟甄萱據其地，與麗太祖(=高麗太祖)數攻戰，麗祖(=高麗太祖)數危。及平甄氏，惡百濟人，以爲車嶺以南水勢山形皆背走，不拱北，遺命勿用車嶺以南人。至中葉，間有登公卿者，而罕少，入我朝，此禁遂弛。然地饒沃，西南瀕海，有魚鹽·竹木·粳稻·絲麻·楮苧之利。俗尚聲色富麗，人多僂薄傾巧而不重文學。以故科第貴顯，則遜於嶺南(=慶尙道)，蓋少以文行砥礪自名故也。

自德裕(=德裕山)爲馬耳山，自馬耳(=馬耳山)西南走，橫劃一道之中，逼海止於務安·靈光等邑，當大脈中通南北路者，名曰蘆嶺，蘆嶺北數十郡大同俗。

全州爲甄萱故都，監司所治，爲一道大都會，多商賈貨物，輻輳擬於京城(=漢陽)及開城，風氣勁悍，民多狡獪²⁾。

花巖山自珠琉(=珠峯山)西下，爲炭峴，爲龍華山。龍華(=龍華山)以北有礪山等五邑，礪山則土粘赤泉有瘴。龍安·咸悅·臨陂·沃溝在錦江南，岸土薄而野，皆不可居。

龍華(=龍華山)南則益山爲野邑，炭峴東則高山爲山邑，兩邑間爲全州良田浦。花巖(=花巖山)·珠琉(=珠峯山)以西之水，大合于高山縣(=高山)前，至良田浦爲栗潭，西入于斜灘，卽益山之南也。有粳稻·魚鳥·芋竹柿之利，千村萬落，養生之具畢。以海潮通斜灘，野闊而土沃，蘆嶺以北，惟此可居。

2) 狡獪：원문에는 校檜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狡獪로 바로잡는다.

斜灘以南，傍海多瘴，惟泰仁稍勝，蘆嶺以南，惟靈光湖山奇勝，水泉清涼。蘆嶺南則長城·羅州·靈巖爲名邑，山川明秀，野極通敞，自古多名宦家。

雖近海而土沃，又多富厚之家，月出山極清秀，其下多奇異之士。蘆嶺東南爲淳昌·南原，山雄野闊，故人物多壯健，自古多貴顯之人。

南原一境，東南傍智異(=智異山)者有瘴，而西北無瘴，一邑皆上田，水南下入蟾津(=蟾津江)，而通南海，故南原紹慶尙右道魚鹽之利，亦多富厚之家。然俗好爭競是非，侈飫而少自立。南原南求禮，山雖秀，土雖腴，一邑皆有瘴。然在蟾津(=蟾津江)上，南有鴨絲(=鴨綠津)·岳陽江，山多勝概。

南原東卽雲峯，在八良峙上，地高土瘠，當湖嶺(=全羅道·慶尙道)孔道，多菑蒲出沒。邑前有荒山，麗末倭賊自嶺南(=慶尙道)至此，爲我太祖所破，有大提學金貴榮教所撰紀功碑。

靈巖以南，康津·海南等邑在海上，舟船通耽羅(=濟州)，地踔遠瀕海，少水多旱，多瘴癘未易居。

康(=康津)·華(=龍華山)東北十餘邑，與慶尙右道相接，與南同俗。大抵近海則水泉多瘴，少水而多陂池，灌溉數旱小收，近峽則多溪澗，多灌田，田皆畝鍾，水土亦少嵐瘴。然山勢雖壯，少平野，此其大略也。

昔涑水公(=司馬光)稱閩(=福建)人狡險，及朱子時，賢者輩出。全羅(=全羅道)雖不及嶺南(=慶尙道)，苟賢者居之，因其富饒之業，教以禮讓，亦非不可居之地也。山川往往多奇勝，自麗·鮮不甚顯，此當一番鍾毓。但卽今地遠俗媮，不可居。

(忠清道)

忠清道在京畿(=京畿道)·全羅(=全羅道)之間，西與海接，東與慶尙(=慶尙道)接。東北角忠州等邑斗入江原(=江原道)之南，車嶺之南近全羅(=全羅道)，車嶺之北隣京畿(=京畿道)。物產多，不及二南(=全羅道·慶尙道)，然山川嫩媚，居國之近南，茲爲衣冠淵藪。京城(=漢陽)勢家，無不置田宅於道內，以爲根本之地。且其風俗近與京城(=漢陽)無異，故最可擇而居之。

監司治公州，而百濟末唐劉仁願所置熊津(=公州)都督府也。距漢陽三百里，在車嶺南·錦水(=錦江)之陰。自公州渡錦水(=錦江)，踰車嶺·天安·稷山，北至京畿(=京畿道)陽城·振威·水原·果川以至京師(=漢陽)。沿路稷山以北，皆野散土瘠，多草寇，不可居。

忠清(=忠清道)內浦爲上。自公州西北可二百里，踰伽倻山則大海，北則與水原隔一大澤，卽西海之斗入處。東與天安·稷山又隔一大浦，名由宮津(=由宮浦)，非候潮，不可用船。南則隔烏棲山，乃伽倻(=伽倻山)之所從來者也，只從烏棲(=烏棲

山東南通公州。

伽倻(=伽倻山)前後有十縣，俱號爲內浦。地勢斗絕一隅，且不當孔路，故壬辰·丙子南北二亂俱不到。土地饒沃，墳衍平曠，魚鹽至賤，多富人，又多士大夫世居。然近海多瘡腫。且山川雖平善迤闊，少秀拔之氣，丘陵原濕雖嫩軟細小，而乏泉石奇勝之景。其中惟保寧山水最勝，結城·瑞山又次之，俱在伽倻(=伽倻山)西麓，海上通舟船商賈之利。伽倻(=伽倻山)之東，惟大興山川最佳，然稍近孔道，不及伽倻(=伽倻山)西之僻靜。

烏棲(=烏棲山)之南，鎮江之北，有八縣。鎮江卽錦江入海處也，江之南爲全羅(=全羅道)境。錦水(=錦江)自流西爲熊津(=公州)，又折而南爲江景，又折而西爲鎮江入海，一江西北皆烏棲(=烏棲山)餘麓也。縣邑俱在山海間，惟林(=林川)·韓山·舒川三邑，在江景西·鎮江上，山平野衍，地宜苧，苧利甲一國。居江海間，舟船輻輳，魚鹽之利，不下漢江，易以廢居。故其民喜商賈治生，多士大夫流寓致富厚者，然水濁而山不佳。青陽·定山，土粘赤山庸闌，水有瘴，不宜居。

公州地甚曠，跨錦水(=錦江)南西北。土人爲之諺曰：“一儒城(=儒城村)，二敬天(=敬天村)，三利仁(=利仁驛)，四維鳩(=維鳩驛)。”言可居也。自錦江至車嶺，土頗饒，然山勢粗健不雅。州之東西四十里有鷄龍山，山北卽錦江上流也。山之一支迤西北爲月城山，州居山之西，錦江沿城西北回抱而南流，南踰一山爲利仁驛，土沃山平。

自州東循鷄龍山背從江之岸，踰二嶺爲儒城(=儒城村)，卽鷄龍(=鷄龍山)艮維也。鷄龍(=鷄龍山)南洞之水畫一野之中，自南踰北，與珍山·玉溪合，入錦江，名甲川。甲川之東卽懷德縣(=懷德)，西卽儒城(=儒城村)·鎮岑也。東西兩山，自南抱野，至此而合。又高障四山，環繞野中，平岡委蛇，嫩媚精秀。南望群峯離立天表，氣像清明秀麗，田地極饒沃。但海汀稍遠，少魚鹽，西仰江景之輸易，不滿百里，眞公州之第一也。

自鷄龍(=鷄龍山)直坤維，西限江景津(=江景)有四邑，尼山·連山·恩津·石城也。俱在公州·利仁(=利仁驛)之南，與公(=公州)之敬天(=敬天村)通爲一野，野闊山低，海潮從江景入，野中諸川谷通舟楫之利。然野瀉鹵，數被水旱之災，井泉不清冽，民帶瘴氣，其不及儒城(=儒城村)遠矣。

利仁(=利仁驛)西·石城北有扶餘縣(=扶餘)，卽百濟所都，在熊津下東岸，有唐蘇定方以白馬釣龍處，石上有迹。扶餘雖故都，局偏側，非佳土也。

公州西北有茂盛山，是車嶺西脈，而土山盤互，內有維鳩驛·麻谷寺。洞壑多澗水，而土又厚，雖山深，而多水田，易灌溉，少水旱之災。地又宜五穀·桑麻·木綿，士大夫與平民一居於此，不知豐凶，少流離迺徒之患，蓋樂土也。地爲山上結局，然岡壟低回，無險厲尖觸之狀。峯腰以上無片石，少殺氣。南師古[南師古，號格巖(=

南師古), 善地理.]『十勝記』, 以維(=維鳩驛)·麻(=麻谷寺)兩水間爲避兵地.

踰一峴卽內浦也. 內浦不宜木綿, 海戶浦民, 以魚鹽多貿鹽, 故綰內浦魚鹽. 平時亂世, 皆可居. 然地在山上, 不見朝山, 少清明秀拔之意, 此其不及儒城(=儒城村)也.

俗離山南走爲德裕山, 盤居兩湖(=忠清道·全羅道)·嶺南(=慶尙道)三道之交, 南走至鎮安縣(=鎮安)爲馬耳山. 兩石峯入天, 自此一脈, 逆而北爲珠琉山(=珠萃山)·雲梯山·大茈山, 入忠清道, 背錦水(=錦江)而回爲鷄龍山.

背北向南, 德裕(=德裕山)·馬耳(=馬耳山)之間, 西北諸邑之水, 合爲錦水(=錦江)之原, 名赤登江. 自南北走至沃川東, 又合俗離(=俗離山)之水, 西折而爲錦江. 赤登(=赤登江)之東, 爲長水·茂朱·永同·黃澗·青山·報恩, 赤登(=赤登江)之西, 爲爲³⁾鎮安·龍潭·錦山·沃川, 而茂(=茂朱)·錦(=錦山)·龍(=龍潭)·鎮(=鎮安)·長(=長水)爲全羅(=全羅道)境, 沃(=沃川)·報(=報恩)·青(=青山)·永(=永同)·黃(=黃澗)爲忠清(=忠清道)境. 茂(=茂朱)·錦(=錦山)等五邑, 雖隸全羅(=全羅道), 峽中人心稍淳古, 與全羅(=全羅道)他縣不同. 又與沃川等諸邑, 壤界相錯, 風氣略同, 而山川之秀拔, 則赤水(=赤登江)之東不及水西, 土田之肥厚, 赤水(=赤登江)之西不及水東. 然惟錦山·沃川, 開野而爲明山平川, 餘皆山中邑也. 茂朱·長水在德裕(=德裕山)之下, 窮林邃壑, 山勢拂鬱.

永同在俗離(=俗離山)·德裕(=德裕山)二山間. 山不甚巖壯, 亦不甚低平. 而巖石峯巒, 俱帶和淑之氣, 溪澗清澄可愛, 無粗惡驚急之狀. 土地亦肥厚, 水易溉, 少旱災, 最爲可居.

青山亦然, 報恩土甚薄, 二邑民賣棗爲業.

鎮安在馬耳山下, 土宜然草, 境內雖高山絕頂, 皆種之, 茂朱居人多以此爲業. 此則龍潭, 溪山奇勝, 而多石土瘠. 其北則錦山, 又北則沃川也, 亦多石山, 然皆野中離立.

沃川北限錦江, 西與懷德隔一嶺. 山精潔, 土色明秀, 如漢陽東郊. 少水田, 惟種綿. 然自古多文士, 南學士秀文(=南秀文)及宋尤齋時烈(=宋時烈), 皆是郡人也. 錦山東限赤江(=赤登江), 西限大茈山, 中間有釣溪(=釣溪山)·進樂(=進樂山)二江, 又多大川, 易灌溉. 土田頗饒, 兼有水石之勝, 十邑中最可居者也.

俗離山在清州之東百里, 山中之水東注慶尙(=慶尙道), 西注入錦江, 北注走爲達川, 入漢江. 山之一枝北走爲巨大嶺, 夾達川, 西北至京畿(=京畿道)竹山境, 爲七亭山(=七長山).

自七亭(=七長山)循漢水(=漢江), 西北行, 散爲漢(=漢江)南諸山, 西南行者, 在鎮川爲大門嶺, 在木川爲磨日嶺, 至錦(=錦江)北爲車嶺. 又西爲武城(=武城

3) 爲 : 衍字인 듯하다.

山)·烏棲(=烏棲山)，而止磨日(=磨日嶺)以東，巨大(=巨大嶺)以西，中開大野，東西二山之水，合爲鵲川。鵲川源於七亭之東南，入於錦江上流芙蓉津。

鵲川之西傍，鎮川·木川·全義·燕岐，川之東爲清安·文義。其中清州最大，邑在巨大嶺下，皆土山無石。東發脈盤互於鵲川以西者，平岡秀梟，夾大川，北自梧根市，南至燕岐·芙江(=芙蓉津)之北，山色紆揚婉媚，野勢重複回互，堪輿謂之脫殺，比錦(=錦山)·沃(=沃川)尤平善。臨鵲川者，尤俯瞰川東大野，通敞爽塏，土地肥沃，宜木綿五穀，皆可居地也。

鵲川之東爲大野，東南通四十餘里，歷清州邑(=清州)居止於文義縣(=文義)。野中有一山八峯，名八峯山。自南向西北，岡麓盤據野中，東與巨大嶺相對，土色明潤，水饒田肥，下多有名村。

清州邑(=清州)居在平地，地低水高，歲患漂圯，東高北虛，隱隱有殺氣，非佳地也。然州置節度營，亦一都會。近鎮川太山之下，岡麓北下疏，蟠溪而山尤嫩，野色尤明秀。州南近文義境者，土尤沃，宜五穀木綿，少水旱災。

鎮川比清州少野而多山，山谷回互又多大川，土頗沃，無山水拂鬱之氣。西北踰大門嶺，則爲安城·稷山地，海汀近百里，故通魚鹽。文義南臨荊江，山少蒼鬱，然臨江多勝地。惟清安山水不可居。

自木川，磨日嶺以西，內浦以東，車嶺以北，卽稷山·天安南北通行大路。傍由宮津(=由宮浦)者，爲平澤·牙山·新昌·溫陽·禮山，與天(=天安)·稷(=稷山)接壤，茲八邑地，沮澤介江海，頗有魚鹽之利。

由宮津(=由宮浦)下流，北與素沙(=素沙河)，合爲令公(=令公巖)，海民多通舟船之利。然稷(=稷山)北接漢(=漢江)南曠野，山水有朔氣，土瘠不可居。惟溫陽·禮山，宜五穀木綿可居，然是山背近孔道，非海非峽，野景又不及清(=清州)·燕(=燕岐)，不宜世居。

忠州在漢陽東南三百里，達川之水，自俗離(=俗離山)北行至金遷，與清風江下流合，茲爲漢江上流，有水路，便可往來，故京城(=漢陽)士大夫多卜居於此。

既有江山之勝，故競治第宅亭舍，衣冠萃止，科第輩出，足稱名區。然江南土甚瘠，江南當畿嶺(=京畿道·慶尙道)孔道，州之東南，皆泰山長谷。且一邑地勢俱走瀉西北，無渟滯之氣，故地少富居者。平時則人物稠聚，多口舌浮薄，有事則爲必爭之地，決不可居。

其東則清風·丹陽·永春，谿峒巉巖，無開野處。東北爲堤川，頗開野，亦多士大夫，而地高風寒土瘠，民貧，皆非可居之地。

延豐在忠州南·達川東，乃峽邑，烏嶺一派高障東南，雖有溪山之勝，無顯者。土頗饒，易灌溉，少歉歲，木綿爲上田。西則槐山，在達川之西地，在烏嶺及楡嶺(=楡岷)兩峽間。地勢狹窄壅腫，少野有不舒之意，然脫殺。東臨大溪，是俗離(=俗

離山北注者，從青川入達川者也。臨溪多名村，土地亦不比忠州之瘠薄，宜五穀木綿。自古多顯貴，又不比延豐之寂莫矣。

(京畿道)

自忠州沿江西下，歷原州入京畿(=京畿道)驪州。

驪州在江之南岸，殘集曠野，土色明秀，山清遠。且距京師(=漢陽)水陸未滿二百里，故多士夫，但土瘠多歉。

南有陰竹·利川，北則砥平·楊根，與江原道洪川接境，在亂山深峽，不宜居。

北有迷遠村，趙靜庵(=趙光祖)愛其山水，有卜居之志。余(=李重煥)嘗一見，山中少開野，地既深阻，氣甚凄寒，四山不雅，前溪太咽，亦非可居之地。

驪州西爲廣州，距漢陽四十里，渡松坡，州在萬仞巔，與江華(=江華島)爲國重鎮，有事爲必爭，且山氣帶殺。其南龍仁·竹山·陽智，俱山水亂散，常多草澤剽劫之患，不可居。

漢江之南，自果川至忠清道稷山，有水原·振威·陽城等邑，皆風水悲愁如古戰場。且當南北孔道，土至瘠，閭閻凋弊，近城，惡少多出沒行劫，皆不可居。

果川西有衿川，衿川西有金浦·通津·仁川·安山·南陽等邑，俱沿海，有魚鹽利。然地瀉鹵山懶慢，不宜世居。惟陽城東竹山南有安城郡(=安城)，土厚水田灌溉如三南(=忠清道·全羅道·慶尙道)，魚鹽爲京畿(=京畿道)之最，距漢陽百五十里，近京(=漢陽)近海近峽，物貨委輸，工商走集，爲漢(=漢江)南一大都會。且山川平闊夷衍，閭閻繁富，又多士大夫，茲漢(=漢江)南第一名區也。

漢水(=漢江)以北，京城(=漢陽)之外，皆無可居。然永平·加平·抱川係東郊(=漢陽東郊)，山水清涼，高陽·交河·坡州係西郊(=漢陽西郊)，水川不及東郊(=漢陽東郊)，俱土薄民貧，無可居處。故士大夫或家貧不於京城(=漢陽)下三南(=忠清道·全羅道·慶尙道)者，能保有家世，出郊者寒儉凋殘，輒失婚班，一二傳之後，多夷爲平民矣。

自漢陽西北九十里，有臨津，津北卽長湍。自長湍西四十里爲開城府(=開城)，是高麗故都。

茲爲天府名墟，所乏者沃野千里。

我太祖受命，移都漢陽，世家大族不欲臣服，都皆留居不從，太祖命百年停舉。留居者，傳子傳孫，以商賈爲生，而不治士業。三百年來，遂無士大夫之名，以故京城(=漢陽)士大夫無渡臨津北而卜居者。

長湍東是永平·積城等地，永平江自來，澄波渡自北來，合臨津上流。

內有漣川·麻田·朔寧等邑，直漢陽北百餘里，水道通二京，雖土瘠民貧，多士大夫。

漣川爲眉叟(=許穆)許穆之鄉.

(卜居論)

(卜居論 序說)

大抵卜居者，地理爲上，生利次之，其次人心，其次山水。四者缺一，非樂土也。地理雖佳，生利乏則不能久居，生利雖好，地理惡則不能久居。地理及生利俱好，而人心不淑，則必有悔吝，近處無山水可賞，則無以淘瀉性情。

(地理)

何以論地理？先看水口，次看野勢，次看山形，次看土色，次看水勢，次看朝山·朝水。凡水口虧疏空闊處，雖有良田萬頃·廣廈千間，類不能傳世，自然消散耗敗。故相陽基，必於水口關鎖內開野處着眼。山中易得關鎖，而野中難以固密，則必須逆水□⁴⁾。無論高山陰坂，有力逆泝遮攔堂局者吉。一重固好，三五重尤大吉，爲永世綿遠之地矣。

凡人受陽氣以生，天乃陽也，小見天處，決不可居。是故野愈廣則基愈美。須使日月星辰之光，粲然恒臨，風雨寒暑之候，盎然得中，人才多出，而亦少疾病。最忌四山高壓，日月晚出而早入。或不見北斗，則靈光既少，陰氣易乘，或作神叢鬼谷，朝夕嵐瘴之氣，又使人易病，此所以峽居不如野居。而大野中殘山周回，則此不可以山稱，統以野稱之者，由天色不隔，風氣遠通也。至高山中，亦須開野處，方可作基。

凡山形，祖宗有樓閣飛騰之勢，主山又秀麗端正·清明軟嫩者爲上。後山綿綿，渡野忽起，高大峯巒，枝脚紆回，能作洞府，如入官府之內，而主勢穩重，如重屋高殿者次之。四山遠却平圍，而山脈落下平地，遇水而地爲野基者，又次之。最忌來龍懶弱頑鈍而無生色，或破碎欹斜少吉氣，則人才不出。此所以不可不擇地也。

凡村居，無論山中水邊，土色沙土堅密，則井泉亦清冽。若赤粘黑礫黃細，則是死土也，其所出井泉，必有嵐瘴，

凡無水之地，不可居。山必得本配，然後方盡生化之妙。然水必來去合理，然後方成鍾毓之吉。故一依堪輿家定論，左旋陽基，須正五行，雙山五行，消水，右旋陽基，只眞五行，消水。第宅坐向，又須與來水合淨陰淨陽，方爲純美之地。

4) □ : 정본에는 砂로 되어 있다.

凡朝山，或有巖惡石峯，欹斜孤峯，或有崩落之形·窺闔之容，或有異石怪巖，見於山上山下，或有長谷沖砂，見於左右前後，皆不宜居。必也遠則清秀，近則明淨，一見令人歡喜，而無凌(山+層)嶒惡之狀則吉。

朝水則謂水外水也。小川小溪，逆朝爲吉，大川大江，決不可逆受。凡逆大水處，毋論陽基陰宅，初雖興發，久則無不敗滅。來水又宜合淨陰淨陽，而又屈曲悠揚，不可一直如射。是故欲建宅爲子孫傳世之計，則不可不擇地理，而六者乃其要旨也。

(人心)

何以論人心？孔子曰：“里仁爲美，擇不處仁，焉得智？”擇非其俗，不但於其身有害，於子孫必有薰染註誤之患，故卜居不可不視其地之謠俗。

我國八道中，慶尙道風俗質實，全羅道狡險易動以非，忠清道專趨勢利，此其人心之大略也。然此從細民而論也，至於士大夫風俗，又不然。

自宣廟(=宣祖)朝，東·西始分朋黨，東人推金孝元·柳成龍·金宇顥·李潑，西人推沈義謙·李珥·成渾·鄭澈。

而已東人分爲南·北，南以柳成龍爲首，右成龍(=柳成龍)者，如李元翼·李德馨，皆爲南人，北以李山海爲首，右山海(=李山海)者，南以恭·柳永慶·奇自獻·朴承宗·李爾瞻爲北人。

光海(=光海君)朝，南人與西人皆失勢，惟北人當國。北人又分爲大·小北，主母廢論者爲大北，岐貳者爲小北，大北以李爾瞻爲首，小北以南以恭爲首。

仁廟(=仁祖)率西人金瑬·洪瑞鳳·張維·崔鳴吉·沈器遠·金自點·元斗杓等反正，盡戮大北，於是西人執國命而通用小北與南人。

孝廟(=孝宗)朝，以反正功臣多驕恣，獎用山林之士，於是懷德宋時烈·宋浚吉，以白衣擢大官。顯廟(=顯宗)末年，以己亥誤禮，許穆·尹鑰攻斥誤禮人，顯廟(=顯宗)朝用其言釐正邦禮，擢許積爲相，仍爲顯，積(=許積)南人也。肅廟(=肅宗)初年，積(=許積)用事，斥西人，進南人，獎用許穆等，西·南始啓爭端。

至庚申，金錫胄使鄭元老上變起獄，殺許積·吳始壽·尹鑰·吳挺昌·柳赫然·李元禎·趙惺(=趙礪)·李德周等，俱宰相也。於是復進用西人，

自此南·西如水火，而西人又分爲老論·少論。老論則以金錫胄·金萬基爲首，宋時烈·金壽恒·閔鼎重·李師命·金益勳等補之，多年老達官，故名老論；少論則以趙持謙爲首，韓泰東·吳道一·南九萬·尹趾完·朴泰補(=朴泰輔)·崔錫鼎等和之，多年少名士，故名爲少論。老論欲盡殺南人，而少論不從，此其所以分也。

後十年，南人閔黯·閔宗道輩得志，反庚申獄，殺宋時烈·金壽恒·李師命·金益勳。六年，西人得志，殺閔黯·李義徵，自是老少論當國互爭者數十年。至肅廟(=肅宗)

末年，老論專局面而少論斥退。至景廟(=景宗)初，少論趙泰考·崔錫恒當國并斥老論，未幾壬寅大獄起，殺老論李頤命·李健命·金昌集·趙泰采。今上初[謂英廟(=英祖)朝.]，進用老論而少論斥退，殺金一鏡·李師尙·尹就商，反壬寅獄，復李頤命等官。即今所存者，老論·少論·南人·小北合四色矣。

小北則本是東人，而且失勢不能自立，與南人婚娶，議論相通。老少初則同是西人，讐怨日以益深，如隔國人矣。三色之黨，分處五道之間，惟慶尙道皆宗禮安李滉之道。而柳成龍爲滉(=李滉)弟子，南人之名由柳成龍起，故舉一道皆爲南人，士夫論議歸一，人心亦質淳。

先是故相金國光孫繼輝(=金繼輝)以連山人，官亞卿，與李珥善。子長生(=金長生)學於珥(=李珥)，居連山教授時，懷德宋時烈·宋浚吉·尼山尹宣舉兄弟，公州李惟泰往學焉。仁廟(=仁祖)初反正功臣皆李珥·成渾之門人也，齊薦集及弟子。孝廟(=孝宗)初，兩宋(=宋時烈·宋浚吉)及尹(=尹宣舉)·李(=李惟泰)皆以山林顯用，已而尹宣舉與時烈(=宋時烈)稍異，時烈(=宋時烈)辱宣舉(=尹宣舉)。宣舉(=尹宣舉)之子極(=尹拯)，初學於時烈(=宋時烈)，而已反之，無所歸。及庚申，長生(=金長生)之孫萬基(=金萬基)以國舅，金錫胄以大妃侄，與之合爲老論之長。時烈(=宋時烈)歸老論，極(=尹拯)入少論，極(=尹拯)肅廟(=肅宗)官亦至相，極(=尹拯)之門人顯攻時烈(=宋時烈)，時烈(=宋時烈)門人又攻。極(=尹拯)之反師，以此之故，老少之間，作一大戰。懷德近處永同·沃川·連山·韓山·林川·扶餘，皆金(=金長生)·宋(=宋時烈)兩家門人子孫也。其中惟尼山·公州多少論，以尹極(=尹拯)故也。

大凡士大夫所居處，人心無不乖敗，植朋黨以收游客，張權利以侵小民。又惡人議己，必欲獨霸一方，而不欲與他人同居。是以互相避去，或不能而同處一鄉，則里閭之間訾毀叵測。

自辛·壬以來，朝廷之上，老少南三色仇怨日甚，互以逆名相加，風聲所及，下至鄉曲，無處非戰。不但婚娶不相通，幾至水火不相資矣，異色與他色親，則謂之失節，謂之投降，互相排擯。以至游士賤隸，一名某家之人，則雖欲更事他族，亦不見納。士大夫賢愚高下之品，獨行於自中一色，而不行於他色，此色中人爲他色所斥，則此色尤愛護之，彼色亦然。雖有彌天之罪，一爲他色所攻，則無論是非曲直，群起而扶之，反作無過之人。雖有篤行隱德之士，非同色也，則必先尋其不是處，工訶巧謫。

蓋黨色初起甚微，子孫世守其祖先之論，二百年來，遂爲牢不可破。老少自西人分裂，老纔四五十年。故或有兄弟叔侄分爲老少者，名色一分，心腸楚越，與同色相話語者，不及於至親，是則無復有人倫矣。

大抵自開闢以來，朋黨之禍，未有如今日之陷弱矣。

是故將欲居鄉，則先尋同色多處，然猶不如擇其中無士大夫處居之也。

(山水)

(溪居)

諺曰：“溪居不如江居，江居不如海居。”此以通貨財取魚鹽而論耳。其實則海上多風，人面易黑，又多脚氣·水腫·瘡癤之疾。水泉既乏，土地且渴，濁水潮入，清韻絕少。我國地勢，東高西低，江自峽出，少悠遠平穩之意，恒有倒捲急瀉之勢。凡臨江構亭舍者，地理多舛，興歇無常。惟溪居有安穩之美·有瀟灑之致，有灌溉畊耘之樂。故海居不如江居，江居不如溪居。

必離嶺不遠，然後平時亂世，皆宜久居。溪居當以嶺南(=慶尚道)禮安陶山·安東河洞為第一。

又捨退溪(=李滉)·西厓(=柳成龍)所居，其上下多據潢水而為勝者。

如清涼汾江一帶及繡洞·九潭(=九潭村)·佳逸(=佳逸村)等村，一曲曲皆異境別界。下流多灘，雖不通江船，面前足以載舫(舟+米)。且田地不遠，足以畊耘，山水相稱，氣像清明，平時足以自娛，太白(=太白山)不遠，亂世可以藏身，八道惟此為最。

東有青松邑(=青松)溪，北有順(=順興)竹溪，皆會于潢水，而一則幽眇窈窕，一則清明秀朗，足以比美陶(=陶山)·河(=河洞)。

次則火嶺·秋風嶺兩間，有安平溪，有錦溪，有龍華溪。茲為三溪，在尙州·黃澗·永同三邑之交，溪山絕奇，而野得溪溉，土地極沃。開朗，雖不及潢水上下，生利則加厚。此在俗離(=俗離山)·黃嶽(=黃嶽山)之間，有上·下弓谷(=上弓谷·下弓谷)，俗離(=俗離山)有飯項·道莊(=道藏山)，可以避兵。

次則沃川陽山·彩霞溪·利川九龍溪，乃錦江上流。

臨水多層巖秀壁，雖不通江船，亦用舫牒，景致絕勝，足為陶山之亞。東近黃嶽(=黃嶽山)·德裕(=德裕山)，可以避兵，但恨水田少。

茂朱雪川·寒風溪土沃，而又在泰山上下，易以避兵。錦山·竹堡，峽中開野而土沃，西有釣溪山，瀑布泉石，濟原(=濟原川)上下亦臨水為勝，而土且沃，又德裕(=德裕山)近可以避兵。

其次原州東酒泉縣(=酒泉)諸村，映帶長川平野，而獅子山泉石又在十里外。其次聞慶·瓶川，北有加恩(=加恩倉)·鳳笙·鳳原等村，西有青華(=青華山)·龍游(=龍遊洞)·仙游(=仙遊洞)之泉，比安平(=安平溪)，尤深阻幽僻。又水田饒沃，柿栗極多，生利比酒泉絕優。然二地，俱在絕峽中，地僻民淳，真隱者之所居。故曰酒泉·瓶川偏宜避世。

又其次槐山·槐灘，上有孤山亭，故判書柳根別業也。天使朱之蕃遣畫工，圖之以見，作記揚額。峽中雖窄隘少野，然土沃而溪山明淨，治南至青川一溪，左右多可

觀。南有青華(=青華山)·曦陽(=曦陽山)之深阻，亦隱者之所宜居也。

又其次雉嶽(=雉嶽山)西安昌溪上下諸村，背山臨流在野而距峽不遠。且水路西通臨江，毋論平時亂世可居，但恨土薄耳。

至於野中溪村，則指不勝屈。此則當以公州 甲川爲第一，清川 鵲川爲第二，善山 甘川爲第三。

此外保寧 青蘿洞·洪州 廣川·大興邑(=大興)川·海美 武陵洞·安城邑(=安城)川·陰竹 清美川·龍仁 魚肥川·南原 蓼川·全州 栗潭·金山 鳳溪·星川⁵⁾ 踏溪·大邱 琴湖，皆甫田沃壤，生利·地理并佳，皆可作世居之地，而但不宜避兵。

夫山水也者，所以怡神暢懷者也。居而無此，則令人野矣。然山水好處，生利多薄。人既不能撤家刈食，則亦不可徒取山水。不如擇沃土曠野地理佳處築居，買名山佳水於十里外，或半日程內。每一意到，時時往來宿留而還，此乃可繼之道也。昔朱子愛武夷(=武夷山)山水，無不藻繪而賁飾之，亦未嘗置家於此。嘗曰：“春間至彼，紅綠相映，亦自不惡。”後之好山水者，可以此爲法也。

論生利·貿遷·山形等十餘條，不錄。

(跋文)

(擇里志跋 - 洪重寅)

按事之難兼，而必欲全美者，古人譬之，“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語雖近戲，理則實然。今觀右人所論，則必欲得十全大結作之地，兼有土地之饒沃·山川之明秀，又有舟楫魚鹽之利，又不遠避兵之處，然後可居。一猶難兼，其可兼有其三四乎？我國本無如此地，是人也，必將一生奔走道路，大喘渴死，而終不離跬步者也。又論倫黨之禍·風俗之薄，譏人之必欲獨霸一方，不欲與他人同居，而及其歸宿，則要擇其同色所居，或無士大夫之地而居之，是何在人則譏之，在己則願之耶？夫人生天地間，不可與麋鹿爲群，木石與伍，必人與人同居，則何必先設其猜防，以自狹其廣闊世界耶？歷觀今世士大夫之禍，多由於黨論，而亦由其人平日主張黨論者懼之，又或有禍起於所交游所親厚者。將何適從而同居乎？且以地理生利言之，名邑大都，亦有貧丐之人；孤村殘里，亦有富厚之民，又豈可專責於地理與生利耶？故愚以爲士大夫處世居鄉，當先論主人翁之賢不肖。主人翁賢，則無往非樂土，不然則天下雖大，終無投足之地耳。余居鄉得拙法者三，故茲錄于下。

士大夫誰不欲求名山水好山木而居之？然勢有所不可者，其一離親戚也，其二遠丘墓也，其三難於白地營立也。是故求之於松楸之下，以爲畢命之地者，上也。就莊土所在處而居之者，亦其次也。余之所居，非擇地而處也。此地卽呀然一荒谷也。既無水石之勝，又有瘠确之患，一朝剪蒙翳，剷磊砢而築室焉。蓋爲與卯君之居堇

5) 星川：星州의 오기인 듯하다.

廿里，而先墓在中間，展省之餘，兄往弟來，輒留數日而返，無間一月，不知人間何樂可以易此也。茅屋葺蔽風雨，飲食葺充飢渴，被服葺備寒暑，餘外華靡之習，一切掃去，無墜先代儒素之風，教兒孫讀書以知義方，課僮僕服田以供饗殮。宅後種桑百餘株，門前種綿半畝地，舍家子董率少婦女，繰絲織布。隙地種雜菜十餘種，以代脯胾。一室之內，終歲經營，惟此數事而已。居處自奉，雖不免寒儉，然其視顏子(=顏回)之陋巷，黔婁之短衾，亦已過矣。常恐無德以堪，況可別營產業爲子孫計耶？居鄉之人，無不殖利取贏，而余則不但食無餘粟，雖有之，亦不欲爲之。概人之誤入，惟利最甚，而鄉黨所賤，隣里之所怨，亦惟在矣。故每以疏廣“賢而多財，損其智；愚而多財，益其過。”之語爲深誠，此吾居家之粗法也。其視擇風水之完美·置田土之膏腴而居之者，可謂拙之甚矣。

余居鄉日久，鄉黨時有來訪，無問色目異同，又不論情意親疎。一以坦懷相對，不設畦畛，所言惟鄉家雜務而已。若語及朝廷得失·官長是非·鄉黨毀譽者，以他言應之，不與之酬酢。或遠來晚歸者，沽酒而勸之，或爲黍以餉之，來不因邀請，去不欲挽執。有所求索，有則應副，無則以情告之。或要轉囑官家者，一切謝以不敢。至於官府所屬之人，閭里閑雜之徒，雖來見，不問姓名，不假色辭，故一再來見而後不來者多，此吾接人之拙法也。是故，雖無大聲譽，亦無大怨謗。未知其與避異色人擇無士夫鄉而居者，得失何如也。

余於治屋之後，繞屋插辛夷蒺藜，作樊籬。門巷種柳數十株，門內種紅碧桃，庭階上種紅白梅·美人桃，堂前仍泉，鑿上下池一方一圓，池內種芙蓉，直池之南，有峯亭秀。方春，山花盛開，與桃李梅杏，一一倒映於池面，作錦紋。人行其中，芬色滯眼鼻，藥鬚襲衣裾。余於此時，詠“野塘春水慢，花塢夕陽遲”之句。初夏，園林風微，黃鳥弄聲，門無剝啄，竹陰送涼，桐影蔽日。忽前峯送雨，池水響，淙淙潒潒枕席之間，就榻午睡，夢亦清涼。余於此時，詠“高臥北窓下，自謂羲皇人”之句。方秋霜落，赤葉滿山，黃菊盈階。杖屨穿林，上招提，遠望伽倻(=伽倻山)·道姑(=道姑山)·廣德(=廣德山)·雪莪(=雪莪山)諸山，若遠若近，縹渺雲際，如活畫十疊。余於此時，詠“采菊東籬下，悠然見南山”之句。深冬大雪，村逕無人，柴門不開，一室幽靜，人事都盡。拓窓視之，但見山鳥從樹梢飛過，晴雪紛紛墜下，亦一山家之清嘗。古人所謂“會心處不必在遠”者，此也。何必山陰棹雪灞橋尋梅也？余於此時，詠“窗外政風雪，擁爐開酒缸”之句矣。

余之取賞於四時者，皆從拙樸真率中成就，故得之不難，而樂亦無窮矣。彼神臯福地，造物所秘，非有奇緣清福者，不可入。其與寤寢懸想，而終身不得往者，孰勝而孰負耶？士大夫之有志居鄉者，必有能取捨焉爾。花隱翁(=洪重寅)書于三拙軒。